민주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이념 및 정향에 관한 연구
: 시민의식 수준과 영역체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ducational Ideas and Orien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 for Building Democratic Citizenship: focused on the Level of Citizenship and Dominated System

오 관 석(Oh, Kwan-Suk) *
신 기 현(Shin, Kie-Hyun)**
(E-mail : coffeeonecup@naver.com

논문접수일 : 2008년 11월 10 일
논문심사일 : 2008년 11월 12 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2월 17 일

* 학위취득대학: 전북대학교
현직: 호남대 초빙교수
** 학위취득대학: 전북대학교
현직: 전북대 교수

www.kci.go.kr

민주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이념 및 정향에 관한 연구

- 시민의식 수준과 영역체계를 중심으로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민의식 함양에 관한 이념과 정향을 제도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논의의 결과,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연구에 따라 미미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시민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질서와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실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시민 교육의 함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수준별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은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왔다. 교육기관은 민주의식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시민사회는 참여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이다. 공공기관은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로 지원하여 왔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시민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육기관에 연장하여 제도화 되어왔다. 나아가 사회활동의 준거가 시민사회의 청소년 교육은 시민의식의 이념과 가치에 관한 교육체계는 미비한 수준이고 체계적 지원이 저조한 수준이다.

[주제어] 시민의식, 시민의식, 교육이념, 교육정향, 청소년

www.kci.go.kr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민주시민의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시기의 시민교육은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청소년기에 획득된 민주적 태도가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이다. 그래서 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사회교육으로 연계가 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이해주 1997). 그러나 학교만이 시민교육을 위한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시민교육은 아동이나 성인을 위한 사회적 교육만을 강조하거나 이와 관련된 연구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다. 청소년을 위한 시민교육이 부차적이고 진부한 문제인지, 아니면 청소년에게 시민교육은 불필요한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시민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기관이나 교육자의 시민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은 교육의 현장에서만 존재하지는 않고, 학술논의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방치한 부분이기도 하다.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시민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정도로 생각하거나 국민윤리나 도덕교육의 일환으로 치부하는 안일한 생각이 시민교육을 등한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민주시민의식은 청소년이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청소년의 시민의식은 교육환경에서 자유롭게 논의되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직접 결정하고 주장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물론 정신적 발달정도가

www.kci.go.kr

미숙한 청소년들이 경험이나 판단을 스스로 주관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써 먼저 청소년의 교육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의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단체, 그 대상과 주체는 누구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청소년 교육의 방법과 범위의 수준 그리고 교육적 이념과 정향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의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민주시민 교육은 그 영역의 한계와 기능, 실효성 측면에서 실천적인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은 장차 민주적 시민을 배출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성장과정에서 유입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올바른 국가관의 정립과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을 위해 밝고 건강한 청소년의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와 분석 틀

민주시민의식은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에 형성되기 쉽다. 즉 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의 보편화에 의한 다양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성취하기 좋은 시기이다. 그러나 청소년 교육은 시민의식의 미성숙, 전통과 근대사회로 이어지는 가치관의 혼돈, 시민교육의 혼란 등으로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정립되지 못했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의 체계와 실효성 있는 교육적 내용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을 위한 교육적 이념과 정향이 무엇이고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느 수준에서 가능한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의 과제를 민주시민의식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www.kci.go.kr

[연구문제 1]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의식의 체계와 수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청소년 교육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는가.

민주시민교육의 시기는 유아기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이다. 김숙자 외(2004)의 연구 내용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민주적인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경험함으로써 아동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시민적 자질을 갖추게 된다. 아동기에서부터 민주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는 김숙자·김규수(2003)연구와 다른 선행연구, 김규수(2000), 김창환(1999), 김영옥·최미숙(1995), 김영옥(1990) 등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청소년기가 민주 시민교육의 적절한 시기라면 왜 청소년기인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또한 어떻게 민주 시민교육을 함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청소년의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함양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엄판호 2001; 통일부 2002; 한국교육개발원 1993).

청소년은 사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판단력과 지적 수준이 미비한 상태이다. 그런가 하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생활에서 규범과 도덕성이 완성되어 있지 못한 시기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상에 대한 교육당국은 청소년의 시민교육에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7차 교육과정에서 청소년의 시민교육에 관한 논의가 중시되었다. 청소년의 시민교육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민주시민의 지적 능력과 의사 결정력, 나아가 사회와 세계 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운발 2005, 88-89).

[연구문제 2] 청소년을 위한 시민교육의 표준과 함양에 교육적 방법, 그리고 활성과 방안은 무엇인가.

www.kci.go.kr

청소년을 위한 시민교육에 대한 표준은 학교교육과 평생교육(평생교육법[2])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시민교육의 표준은 현대사회의 도덕성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윤리의 기본정신을 확립할 대안을 찾았다. 청소년교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과 법체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의 사회교육법은 교육법의 하위법 정도로 작용하였으며, 법의 적용 범위가 극도로 한정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이종만 2003; 1995; 박호근 2000). 따라서 청소년교육의 체계 및 행정에 많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법체계가 보다 구체화되고 실제화 되어 확립된 것이다(이종만 2003).

청소년을 위한 민주 시민교육의 함양은 의사 결정이나 사고력 향상 등 반성적 사고력, 시민의 자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직접 밝힌다기보다는 그 자질과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청소년교육의 시민의식 함양에 구체적 적용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민주시민 덕목과 민주주의 이념을 재정립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민주시민의식 정립은 인간의 존엄성 인식, 기본 생활 습관 및 질서의식의 내면화,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서의 숙달,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교육에 관한 수준을 제도화 수준과 사회화 수준으로 대별하였다. 청소년기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과 교육환경은 제도화 수준에 초기가 된다. 또한 청소년은 낮은 수준의 사회화에서 사회

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은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3호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400호로 1차 개정되었다. 평생교육이 제창된 이후, 아직까지는 교육제도의 많은 부분이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학교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교육기관과 조직들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 정보・ 지식사회가 도래하고 여가시간이 증대되며, 점점 사회가 노령화되어 가고 민주화되면서 청소년 중심의 제한된 공간에서의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평생교육은 초기의 개념적 문제에서 확대되어 실제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이다.

www.kci.go.kr

화 수준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이다. 비록 낮은 수준의 사회화이지만,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형성된 시민의식은 어른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 된다. 이들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민주시민의식의 수준은 청소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수준에서 형성된 시민의식은 민주사회의 시민정신으로 함양될 것이다.

연구 분석의 틀은 민주시민의식 형성을 제도화 수준과 사회화 수준으로 대별하고 각 분류에 각각의 영역이 청소년에게 시민교육이 미치는 정도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제도화 수준과 사회화 수준이 고도화 되는 영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사회의 구성으로써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고도화 영역은 민주사회의 영역으로써 청소년의 시민의식 형성의 결정이며 이상이 되는 것이다.

Ⅱ. 선행연구의 논의와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의 논의

버츠(Butts 1988; 1991)는 시민성(citizenship)[3] 또는 시민의식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 공동목적, 공동체 의식 등과 관련하여 통합성과 다원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프록터(Proctor

3) 시민성(citizenship) 또는 시민의식(citizenship)은 동일 개념이면서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시민성(citizenship)은 "Civitas"라는 어원을 갖는데, 당시는 시민성 개념을 '국가나 공동체를 구성하며 이를 위해 기능하는 개인이나 제도의 역할'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Butts 1991, 19). 반면에 시민의식(citizenship)은 시민사회 또는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으로서의 자질·품성을 말한다. 이와 같이 시민성과 시민의식은 다의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는데, 여기에 마샬(Marshall 1950)은 시민성(citizenship)을 시민,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개념정의를 한다. 다만 여기에서 시민성과 시민의식의 개념은 원저의 의미를 그대로 인용하며 사용할 것이다.

www.kci.go.kr

1988)는 시민성의 개념을 독립된 개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 '관계'로 묶여진 사회의 구성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시민성은 특정한 시대적 사회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에 근거해서 요청된 자질이라고 한다(Proctor 1988, 16; 김왕근 1995, 62). 버츠(Butts 1991; 1988)와 프록터(Proctor 1988)는 시민성 개념을 독립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즉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시민의식 개념의 범위를 좁혀서 보면, 히터(Heater 1990, 318-319)는 시민의식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공동체 보다는 그 범위를 한정하여 지역사회의 현대적 개념을 도입하였고 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의미에서 근대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데이비스 외(Davies et al. 2005)는 글로벌 시대에 시민의식 교육이 무엇인가를 논의하였다. 이들은 글로벌 교육과 시민교육의 비교에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교육 발전적 차원에서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시민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 입장에서 로슨(Lawson 2001)은 능동적 시민성 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로슨(Lawson 2001)은 시민성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믿음과 이해에서 시험되어 왔다고 강조하면서 상호간의 책임이 기초한 시민의식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능동적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로즈(Ross 2007)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된다. 그녀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에 관해서 부분적으로는 시민성과 권리에서 정체성과 권리의 의미를 다차원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연구한다. 따라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실제 시민성 교육의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쟁점화된 권리를 탐색하는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도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 형성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전현심(2005)은 사회변혁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www.kci.go.kr

성인교육을 강조한다. 성인교육을 통하여 성인교육의 전통, 사회운동이 갖는 교육적 성격을 논의한다. 결국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인간 자본보다는 인간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세계화의 지배적 형태에 대항하여 세계 시민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성인교육을 강조한다.

그런가 하면 세계 경제적 관점에서, 전창완(2004)은 시장 경제의 역사성을 인식하고 경제적 시민의식을 강조한다. 특히 경제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노동과 여가의 가치를 삶의 가치실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정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정의해도 시민의식 또는 시민권의 개념이 기여해 온 것을 동등한 법적 자격의 향유라는 수동적인 권리 개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Benhabib 1999; Dahrendorf 1990; Gutmann 2003). 세계화시대 시민의식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크게 자유접근 방법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방안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이하다.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동일한 대우를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민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써 체제와 법의 지배를 견고히 하는 실체이다. 제도적 실체로써 시민은 민주주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민주적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시민의식은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 혹은 자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아니라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 즉 시민이라는 지위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시민의식이란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측면을 기반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공동체 생활에서 합리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이운발 2005).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상인(2008)은 일상의 민주적 시민의식으로 세 가지를 주장한다. 먼저 사회 경제적 위치와 관계없이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려는 성향과 태도, 둘째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향과 태도, 셋째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 약자에 주의를 기우리는 성향과 태도를 말한다. 민주적 시민의식은 일상생활의 비

www.kci.go.kr

민주적인 의식과 태도 행위 그리고 관행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를 말한다.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김숙자 외(2004)는 무엇이 민주시민 교육인가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공공질서의 순[4]으로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한결같이 어린 아동기나 청소년기 때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시민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민주 시민교육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의 자질과 요소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대한 신념과 기본적 지적 기능을 말한다(Engle & Ochoa 1988).

청소년교육을 위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시민정신, 합리적 판단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말한다. 나아가 인간존중과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이다. 우리 교육의 현실은 7차 교육과정(1999)에서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 세계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세계시민의 자질, 정보처리 기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등을 말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을 위한 시민의식 논의는 김영인(2003)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김영인(2003)은 청소년 교육이 가정·학교·대중매체 등의 정치사회화에 한계를 갖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봉사활동에 참여를 강조한다. 봉사활동의 효과는 참여민주주의론, 경험중심 학습론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지지되며 경험적 연구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다. 즉 김영인(2007)은 청소년의 참여실태와 참여경험,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변화정도를 연구한 결과, 청소년의 참여활동은 긍정적 변화를 주고 있으며 시민의

4) 김숙자 외(2003)의 연구에 의하면, 민주시민 교육 내용의 범주는 인간의 존엄성, 공공질서, 자문화와 타문화 이해, 민주사회에서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서의 절차,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www.kci.go.kr

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연구이다. 박영신 외(2006)는 한국의 청소년과 성인의 심리차이를 연구한 내용에서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서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이와 같이 민주시민의식의 논의가 시대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고 이론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2. 연구 논의의 이론적 배경

시민의식 접근은 역사적, 정치사회학적, 교육적, 철학적 접근에서 학문적 범위를 좁게 규정한 서술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로 구분하할 수가 있다. 서술적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 의존하여 왔는데 시민의식을 공동체와 시민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 이해한다. 이와는 달리 규범적 연구는 철학이나 교육의 차원에서 시민의 자질과 덕목, 의무와 헌신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왔다. 이와 같은 연구의 접근들은 시민의식 개념과 교육적 차원에서 어떠한 시각과 범주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왔기 때문에 이론적 타당성과 논리성을 갖추고 있다.

시민의식의 범주화는 하버마스(Habermas 1999; 1987)에 의해서 체계화 된다. 하버마스(Habermas 1987)는 사회를 “체계”와 “생활세계”로 구분한 후, 체계는 화폐와 매체로 하는 사적인 경제체계와 권력을 매개로 하는 공적인 행정체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생활세계는 사회화를 담당하는 사적 영역과 담론적 공론형성을 담당하는 공공영역으로 나누었다. 이를 좀 더 간략하게 논의하면 개인영역, 시민영역, 시장영역, 공공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시민의식의 함양에 발전 방향을 규정하고 시민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여 논의 되어 왔다.

임희섭(2001)은 한국사회 시민성의 이론적 고찰에서 시민성의 도출을 구조적, 제도적 차원과 문화·심리적 차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시민성은 특정한 사회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지

www.kci.go.kr

니고 있는 “시민 사회적 특성”과 특정한 사회의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시민적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김성국(1992)은 시민사회는 시민권, 자율성, 공동체적 비계급적 시민의식, 타협적 개혁의식 등의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때 시민사회는 국가의 권력적 지배로부터 얼마나 많은 자율성을 획득했느냐 하는 권력관계적 측면과 의식의 면에서 자율적이고 공동체적(비계급적 혹은 탈계급적)이냐에 따라서 시민사회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성국 1992). 국가, 시민사회, 경제의 세 영역이 상호 견제하고 침투하면서 풍요로움을 지속시키고 자본주의나 관료제적 폐단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낙관적인 시민사회론을 전개하는 코헨과 아라토는 시민사회의 구성요소를 다원성, 공공성, 사생활 그리고 법률성 등으로 구분하였다(Cohen & Arato 1992, 346). 그들이 주장하는 네 가지 구성요소[5]는 넓은 의미에서 자율성을 포함하는 것이고, 공동체 의식은 공공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곽준혁(2004)은 민주적 시민의식의 개념에서 폭넓게 국경을 초월한 인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의식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자유주의적, 시민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접근방식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시민의식 함양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들이 나왔지만 분석적인 시민의식 함양에 관한 연구와 나아가 시민의식 함양에 관련된 복합적인 구성단위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를 한 추경훈(2004)은 시민의식 교육에 관한 민주주의 교육의 이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먼저 민주주의 지식의 교육과 구조화의 달성이다. 시민의식 교육의 구조화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 절차,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개념을 학습하도록 구성하

5) 4가지 구성요소에서 다원성은 생활양식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가족, 공공성은 문화와 의사소통의 제도, 사생활은 사적 자아발전과 도덕적 선택의 영역, 그리고 법률성은 국가와 경제로부터 다원성, 공공성 사생활을 경계 지우는데 필요한 일반적 법률과 기본 권리의 구조라고 한다.

www.kci.go.kr

는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주의 원리의 활용 및 내재화이다. 이는 민주적 생활양식을 내재화는 의사결정의 합리적 절차와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의 접근에서 시민의식 함양의 이론적 배경은 제도적 수준에서 교육환경과 공공 영역의 민주적 시민의식에 이르기까지 논의한다. 또한 사회적 수준에서 사적 영역의 가정환경에서 시민사회의 시민교육을 구분하여 연구한다. 이러한 논의의 근거는 그동안 시민사회에 알맞은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논의가 생활세계의 사적 분야에서 공공 분야의 민주주의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논의되어왔기 때문이다.

Ⅲ. 시민의식 수준과 영역체계의 이념과 정향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민의식 함양의 수준을 사회적 수준과 제도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생활세계의 사회적 기초단위인 개인영역, 사회체계의 시민사회의 구성체와 제도적 분야로서 교육환경, 사회체계와 공적 분야인 공공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1. 체계의 사회적 수준에서 시민의식 교육

1) 개인과 가정에서의 시민의식

개인은 생활세계에 대한 재인식되며 환경에 대한 기본적 단위로 가정을 갖는다. 가정환경은 다른 환경에 비하여 심리적 성향이 강하며 동질감과 유전인자로 구성되는 인간의 기초적 단위이다. 심리적 환경으로 구성되는 가정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하는 환경과 주어진 그 자체의 환경적 의미도 갖는다. 가정환경은 인간

www.kci.go.kr

의 모든 집단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며 기본적 단위로 구성원의 인격형성을 결정하는 기준체가 된다. 그래서 가정환경은 인간생활의 기본적 삶을 반영하는 모체이다. 발레이와 아나스타시(Baley & Anastasi 1981)는 가족관계의 밀도와 지속성은 계층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또한 가정은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형성해주는 일차적 집단이다. 따라서 시민의식 교육의 최초의 교육장소로서 지위변인의 직·간접적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정은 교육적 기초단위이며 상징하는 그 의미가 크다.

학문적 시각에 따라서는 가정환경에서 부모와 자녀관계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루진다고 보고 있다(Brooks 2001). 가정환경에서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는 뉴와 리치맨(New & Richman 1996)의 연구를 통해서 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 문화적 특징과 관계된 변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린필드와 슈쥬키(Greenfield & Suzuki 1998)는 부모와 자녀관계를 사회문화 집단의 관점에서 독립모형과 상호의존모형을 분류하여 두 모형의 문화 간 차이를 분석한다.[6] 이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정도는 그렇지 않은 부모자녀 관계에 비해서 시민의식 함양에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강조한다.

청소년에게 가정환경은 심리적 요인의 가치정향을 결정짓는 곳이다. 심리적 요인이란 인간과 인간관계 혹은 심리작용에서 생기는 역할기대, 구성원 상호간의 태도, 가정의 결속력 등의 심리적 변인으로 구성된 환경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행동은 윤리적 행동방식과 구성원의 생활원리가 청소년에게 실천덕목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의 윤리의식 고취는 물론이고 모든 행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결과가 작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심지어

6) 예컨대 독립모형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성장하기를 독려하고 상호의존모형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부모와 성인들을 존중하고 자신의 욕구보다 가족과 집단의 욕구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Greenfield & Suzuki 1998).

www.kci.go.kr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채널이나 어른들의 행동이 청소년의 성격형성에 기반이 되고 청소년의 내면에 학습되어 윤리의식이 형성된다.

따라서 청소년이전의 아동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리적 내재화를 통해서 윤리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과정은 부모분리, 자식분리라는 내적인 과제로 개개인에게 통관의례[7]를 체험하게 된다(박아청 2006).[8] 성장과정기의 청소년의 분리 독립은 사회적 의식을 경유하는 때보다 훨씬 고독하고 가혹한 심리적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

청소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은 부모의 반면교사이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답습하는 특성이 있어서 부모가 하는 행동을 인지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부모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타인과 공존하는 방법과 기본적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규와 도덕성을 갖추도록 생활체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사회에서의 절차와 규칙에 대한 질서의식 그리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율성 등에 대한 생활의 윤리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청소년의 윤리의식에 가치 기준은 다양하게 인식되어 왔다. 대체로 근본적 개념은 도덕적 자아 형성, 민주적 인간관계 형성, 공공선에 대한 시민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질서를

---

7) 박아청(2006)은 통관의례의 과정을 통해서 아동은 자립의식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하고 아동의 자립심은 또래 아동들과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장 또는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박아청 2006, 164).

8)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인간적 윤리의식은 유치원이나 유아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다고 한다(김숙자・김규수・김현정 2004). 아동기의 정신적 성숙과 육체적 발달은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대체로 정신적 발달이 우선하고 심리적 성숙도는 부모와 관계, 나아가 가정에서의 정체성의 변화마저 가져온다. 가정에서의 부모 자식과의 경계선 소멸화가 점차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 간의 경계선이 이른 시기부터 점차 견고해진다고 한다(박아청 2006). 아동은 경제적・정신적인 독립과 자립은 늦어지고 있는 반면에 심리적・물리적인 부모와의 분리, 부모배제는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기에서부터 시작된다.

www.kci.go.kr

존중하는 준법정신과 비판적 사고력, 창조적 사고,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능력 배양 등을 함양하는 것이다(김태영 1995).

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윤리의식은 기본생활 습관을 준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규칙과 질서를 따르고 자신의 책임감과 자율성 더불어 공동체 의식, 타인존중, 이해와 양보, 올바른 사회화, 양심, 도덕성, 인격존중 등 이다. 청소년에 형성되는 시민의식은 잠재적 의식에 내재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행동을 지배하고 정신적 세계를 통제한다.

2) 생활세계의 시민사회에서 참여의식

생활세계의 사회적 수준은 시민사회의 사회성을 함양하는 중요 환경이 된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는 개인의 행동과 자율이 제약된다. 특히 생활세계의 자율적 공공성이 치명적으로 침해받는데 이것이 곧 하버마스가 말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이다(정유성 1998, 75). 시민사회 영역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식민화를 저지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 사회운동이 활성화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사회제도의 적극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회운동이 전개되어 왔다(Scott 1990, 132). 청소년이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운동에 역할을 강조하는데, 미국사회과교육학회(NCSS)[9]는 문제에 관해서 교육하고 토론에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회적 참여 속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마음을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을 창출하는 능력을 함양한다고 본다(장원순 2007). 이러한 시민사회에 대한 공공성의 창출은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이

9) 미국사회과교육학회(NCSS)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적 가치로써, 1) 개인과 집단의 권리에 대한 존중, 2) 소수의 권리 존중과 다수결의 원칙 수용, 3) 정보를 얻어 분석하며 제한되거나 때론 갈등하는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하고 정치적 과정에 관여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으로 말한다. (http://www.skypoint.com/members/dennyj/Values1st/citizenship.html).

www.kci.go.kr

다. 권오정(1987; 1990)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공공 행위양식을 학습하고 표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시민교육은 인간의 정치 및 사회생활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적 일체감을 형성하여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학습과정이다.

시민의식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협동을 통한 시민 개개인의 삶의 복지와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뱅크스(Banks 1990, 4)가 사회과의 주된 목표로써 공동체, 국가, 세계의 시민생활의 성공적 참여를 주장한 것은 결국 협동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10]. 또한 듀이(Dewey 1964)가 민주주의의 이상으로 공동이익의 공유와 상호이익의 인식, 그리고 사회집단 간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말한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민주주의 교육의 목표로써 바로 협동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추성훈 2004, 407).

공동체가 존속하는 것은 사실상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기 때문인 것이다(Poplin 1979), 따라서 민주 시민적 자질 함양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사회과에서는 인식의 틀로 비판력과 협동력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김숙자(2004, 106-107)는 시민의식은 사회생활 참여의 능력과 갈등해소의 능력을 말한다. 반대 의견을 민주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능력 즉 양보와 타협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김항원(1999)도 민주시민의식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동체 이익을 위한 협력과 책임감 있는 참여, 합리적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시민이라고 한다. 청소년은 시민생활의 참여와 합리

10) 최병모(1997)는 시민의식 교육의 목표를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책임 및 자율성, 평등과 사회정의, 공공의 일에 대한 참여, 지적 능력의 향상, 개방성, 양보와 타협, 합리적 의사결정과 비판적사고, 다원성, 규칙준수와 준법, 민족의 자존의식, 민족 공동체 의식 등으로 보고 있다. 또한 차민수 외(2002)는 시민의 기본권리로 인간의 존엄성, 평등, 규칙, 공공 질서, 절제, 청결, 환경보호, 책임, 합리적 의사결정, 민주 사회에서의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www.kci.go.kr

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함양시켜야 한다. 따라서 김해성(1995)은 공동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 능력 배양을 기르는 것이고, 앵글과 오초아(Engle &Ochoa (1988)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 의사결정 능력 배양이라고 한다. 곽병선(1992)은 시민의식을 사회생활 참여 능력, 갈등 해소 능력, 반대의견 평화적 개진 능력 등으로 말한다. 사회적 합리성에 의한 참여의식은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해결의 그 목표 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 한다. 청소년들에게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 외에 타자에 대한 배려와 타협, 그리고 협동하는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능력을 기르고 타인과의 협동과 갈등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 태도는 이미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합리적 해결능력과 집단 상호작용능력은 후에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시킨다.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민주 시민의 근본적 이념은 문제해결의 능력과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능동적 참여, 합법적 절차를 존중하면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은 자발적인 협동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며 자발적 협동은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비판력과 협동력에 의해 진정한 민주적 참여의식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체계의 제도적 수준으로써 교육

1)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시민교육

체계의 제도적 수준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은 시민의식을 목표로 삼아 청소년 교육을 발전시켰다. 교육기관으로써 학교는 제도적 영역의 본질이며 체계적 교육을 담당하는 환경이다. 따라서 학교환경은 시민자질을 함양하는 목표

www.kci.go.kr

와 심리적 인격 형성을 결정하는 요체이다. 제도적 영역에서 시민의식 교육은 미국에서도 1915년과 1916년의 보고서 이래로 사회교육이나 정치교육의 주요 목표로써 받아들여져 왔다(Mehlinger & Davis 1981, 40).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 사회교육과 정치교육이 도입된 이후에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1900년경 사회교육이나 정치교육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이를테면, 뉴만(Newmann 1975)을 비롯하여, 앵글과 오초아(Engle & Ochoa 1988), 파커(Paker 1989), 디네슨과 그로스(Dynneson & Gross, 1991) 등의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들은 공식적 교육과정이 시민의식의 함양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목표는 정치사회 영역의 주요 교육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과 관련하여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는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11]을, 중학교과정에서는 "사회의 여러 현상을 통합적 시각"을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 여러 분야의 지식과 탐구방법"을 함양하는 곳이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는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의 일부로써 사회과를 두고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으로 구분

11) 초등학교는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게 하고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판단 능력을 길러, 개인과 사회, 국가 및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가지게 한다(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1982, 98). 특히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목표는 사회과교육으로 논의되어 왔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는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중학교과정에서는 "사회의 여러 현상을 통합적 시각으로 이해하고, 우리사회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능을 길러, 개인과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기르게 한다."(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1992-11, 1992, 60).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 여러 분야의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지식을 활용하는 기능을 익혀,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며 사회와 국가 및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게 한다."(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1992. 121).

www.kci.go.kr

하여 포괄적 하위목표[12]를 두고 있다.

청소년의 제도적 교육의 실천은 해방이후의 도입과정인 신교육제도에서 시작된다. 당시 교육과정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종합교육의 과정으로 민주주의 확립과 사회생활과의 핵심으로 보았다(이상선 1946). 당시에는 민주주의 생활훈련을 강조하고 교과목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당국은 청소년교육의 교수내용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기를 희망하면서 사회관계 과목을 청소년의 생활에 접근시켜 피교육자의 심리에 호흡을 맞추었다(이진석 1995, 179). 이렇게 청소년의 교육은 '시민의식 원리'와 '통합성 원리'로 사회생활을 교육의 이념으로 정하였다. 이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정통적인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의 방법을 탈피하여 개성을 중시하는 아동중심, 문제해결 중심, 생활중심의 교육방법으로 전환이 모색되었다(이진석 1995).

이상의 사회과 교육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결국 사회과 교육과정은 과학적 사회인식을 통한 시민교육을 의도한다고 본다(추정훈 1998). 시민의식 변화와 발전은 사회과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또한 시민의식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및 학습 내용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청소년의 실천 교육이 의식적 판단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구체적 사회생활에 겪게 될

12)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사회'는 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인간사회와 환경'은 현대 인간사회와 환경의 구조를 이해하여 현대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말한다.

www.kci.go.kr

질서의식과 공동체 규범, 정치적 시민정신, 민주주의 가치관에 대한 청소년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시민의식은 참여정신과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다양한 가치가 존중 받는 다원주의 가치를 함양시켜야 한다. 민주시민의 정치적 가치관을 함양시킬 교육이념이 청소년의 실천 윤리가 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시민의식 원리와 통합성의 원리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올바른 사회인식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을 실천하는 교과로서의 교육제도는 성장과정에서 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최은수(1997)는 민주 시민교육은 학교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나 지나친 사회화 과정에 치중한 나머지 반사회화 과정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초·중등과정의 민주시민교육이 미약하며 실천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일선 교육행정의 지원도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단순한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민주시민 자질로서 민주적 태도가 교육과정에서 스스로 취득할 수 있는 통합성 원리의 학습이 우선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2) 공공영역에서 민주시민의식

체계의 공공영역은 국가라는 특수한 임무를 시민사회로부터 분리하면서 갖는 개념이다. 밀(Mill 1975)은 공동체적 공간으로서의 공적 영역(the public sphere)이 시민의식의 발현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한다. 그래서 제이콥슨(Jacobson 1997)은 시민의식의 제도를 '국민국가의 요체(a linchpin of a nation-state)'라고 언급하면서 민주국가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아렌트(Arendt 1958)는 공적 영역은 "인간의 발언과 행위를 통해 서로를 드러내고 관계를 맺는 가운데 생기는 영역"이라고 규정한다. 하버마스(Habermas 1987)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공공영역(public sphere)을 개념화 하여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논의하였다. 즉 공공영역에서는 상호의 이해와 이성적 합의를 통한

www.kci.go.kr

‘의사소통의 합리성’의 장이라는 것이다. 공공영역에서의 시민교육은 합리적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선택과 판단에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의 함양이다.

공공영역에서 민주교육은 청소년을 그들의 공동체 생활에 연결하는 모든 행위들을 민주적 가치와 행동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시민의 민주적 가치구현이 민주사회의 평등과 자유를 실현 가능케 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의식은 국가에 의해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지위를 갖는다(조영달 편 1997, 8). 따라서 시민의식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전제가 된다. 민주시민의식은 공동체에서의 사람의 완전한 구성원을 의미하는 지위이다(Ruzicka 2000, 58). 민주시민의식은 한 사회의 국민이 지니는 시민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맥락에서 자기존재의 행사이며, 사회적 구성이다(전현심 2005). 청소년의 시민의식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회적 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민주적 의식행위이다.

청소년의 시민의식 교육은 교육과정과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나아가 시민사회에 적합한 개인을 양성하는 목적을 갖는다. 대체로 교육 심리학과 교육 실무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추병완(2008)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도덕성을 실천과제로 교육을 논의한다. 민주주의 교육에 대해 논의한 추정훈(2004)은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주의 가치관을 제대로 내재화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사회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재정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내재화 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추성훈(2004)이 말하는 민주주의 내재화는 민주주의 개념의 이해와 구조화, 기능적 훈련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의 내재화를 통해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주장한다. 홍용희(2004)는 민주시민 교육은 사회변화 개혁의 비전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구체적인 대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의 에너지가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www.kci.go.kr

이와 같은 연구 논의에서 시민의식의 함양은 청소년기에서부터 그 자질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서울대사대교육연구소(1981)의 연구와 남억우(1998)의 연구에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식은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함양하는 것이다. 또한 안정수(1997)도 성숙된 시민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청소년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의식 교육이 우선한다. 구체적으로 유석렬(1996)은 민주주의 근본 원리(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며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과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사람을 형성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다양한 목표의 설정과 교육이념은 청소년의 시민의식 함양에 기본적 정향을 갖게 만든다. 청소년이 갖는 교육이념과 시민의식은 장래의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될 건전한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며, 국가 사회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Ⅳ. 청소년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활성화 방안

1. 사회적 영역에서 시민교육 활성화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은 아동기에서부터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시민정신은 무지, 편견, 억압 등 인간 자신의 굴레와 한계에 대항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도와 절차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육의 과정에서 학습하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시민정신 개발에 중요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환경은 제도화 수준이나 사회화 수준에서 체계적 교육방법론이나 교육시스템을 갖고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교육은 부모가 알아서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남의 가정생활에 지

www.kci.go.kr

나치기 개입을 꺼려하는 문화적 속성에 연유하기도 하다. 가정환경에서는 의식 있는 부모의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정내에서 가훈을 정하기를 한다거나 또는 실천교육으로 직접 도덕교육에 가족이 참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은 아동의 장래에 행동의 기준이다. 부모가 거리에서 교통질서를 준수할 때 아동도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에서 시민교육은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정신, 합리적 판단과 문제 해결능력을 말한다. 또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 참여하는 정신을 말한다. 즉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문제 해결능력의 의식형성을 말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교육은 성인을 위한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송복임(2002)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의 참가시간에 대한 연구에서 민주시민의식과 상관관계를 연구한 내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는다. 그러나 황윤주(2001)은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시민의식은 성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아동을 위한 시민교육은 미약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시민교육에 참여한 아동이 어릴수록 시민의식의 높다는 연구결과이다.

시민의식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이루어 시민 개개인의 삶의 복지와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협동력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상호 의존성 내지 상호작용의 능력을 말한다. 미첼(Michael 1999)도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중재능력이 아동의 정치사회화의 대행자가 된다는 연구이다.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는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경우에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준다. 부모의 관심이 긴밀한 청소년은 자아 존중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화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 청소년의 사회화 수준은 시민사회의 교육적 맥락에서 사회의 시민의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www.kci.go.kr

그러나 청소년의 사회화 논의는 상대적으로 아동이나 학생들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반면, 시민의식으로 인정하는데 미흡한 점이 적지 않게 있다. 특히 교육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청소년의 권리에 무관심하다면 기존 교육의 관행과 기득권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피해를 가져올 뿐이다. 시민적 교육의 권리는 교육 당사자의 다양한 입지를 고려한 교육적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시민사회 접촉을 자주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는 청소년보다 더 사회화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시민사회단체의 견학 및 시민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또는 청소년에게 직접 시민사회단체에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각종 봉사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은 이론적 내용에 그치기 쉬운 시민의식 교육을 보다 현장감 있게 하리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2. 제도적 영역에서 공교육 활성화

민주시민의 자질은 학교환경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시민의식이 떨러지는 것으로 조사된다(조성수 1990). 정윤정(2003)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업 모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참여 활동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은 교사가 아동들에게 적합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내용, 혹은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급히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환경의 본질적 관점은 제도적 수준에서 교육기관의 일방적 이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환경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나아가 심리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반의 과정이 아동교육의 전반적 교육환경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아동

www.kci.go.kr

의 실질적 민주 시민교육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제도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사의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정기적 교육이 필요하며, 교사 스스로가 시민의식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기에 성장하는 아이들은 교사의 가르침에 절대적 신념과 믿음을 갖는다. 교사의 시민정신과 이를 행동으로 교육이 이루어 질 때, 청소년의 시민교육의 성과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이 재미있게 학습할 때 교육적 효과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지도안이 개발되어 보급 확산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은 이상에 대한 신념과 기본적 지적 기능 그리고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정부의 변화와 따른 교과서의 개정이나 지침 등의 수정은 이를 활용하는 교사들의 가치 정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데이비스 외(Davies 2005)는 시민의식 교육은 품성과 교육적 발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들은 상반된 의미와 적지 않은 차이를 갖는다고 한다. 정윤정(2003)은 규범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교육은 피교육자의 이해와 관계에서 전인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적 국가에서 청소년 교육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와 국가는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다양한 목표의 설정과 교육이념은 청소년의 시민의식 함양에 기본적 정향을 갖게 만든다. 청소년이 갖는 교육이념과 시민의식은 장래의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될 건전한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며, 국가 사회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

www.kci.go.kr

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민주시민 교육은 평생 교육 또는 평생 학습의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청소년 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민주적 국가의 정체에 관한 제반 사항,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는 정향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이 갖는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과 가치, 그리고 민주적 생활 방식을 영위할 수 있는 태도 등을 교육의 주된 목표와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실제로 행동하면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액션러닝(Action Learning)에 눈을 뜨고 이를 현장 교육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훈련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시민교육 함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실천 지향적인 교육은 당연히 시민교육에도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부가 법과 제도적 지원을 지원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기적 시민의식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Ⅴ. 결 론

성인이나 아동을 위한 시민의식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학술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청소년에 관한 민주시민의식의 논의는 제한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체계성과 연계성 차원에서 한계를 갖는다.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장기적 연계한 연구의 결과는 부재한 편이다. 청소년들의 생활행태가 대부분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성도 있지만,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 사회 환경의 여건은 여전히 미숙하고 인식도 성숙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시민사회는 청소년을 위한 시민교육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이다. 이는 한국의 시민사회의 미성숙과 청소년교육의 전문 인식이 미미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과 전문

www.kci.go.kr

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의 설립과 청소년교육 담당자 육성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교육을 위한 시민의식의 자질을 함양시킬 구체적 대안과 교육과정에서 적절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의 시민의식 교육은 적극적이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만 피교육자가 느끼는 교육적 효과나 교육성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청소년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기관이 액션러닝과 같은 시민교육 모델들을 제시하고 청소년교육의 시민교육을 담당할 전문 교사를 양성할 교육적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국가는 청소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의 지원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적극 개입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정치, 이념, 남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들이 다양해지면 청소년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의 변화 속에 민주시민교육은 여전히 관찰하고 실험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관련학문과 분야에서 실증적 이론을 모색하는 동시에 경험상으로 시민교육의 바람직한 모델과 방안을 강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육의 법,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원과 제도화는 오랜 기간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부문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정파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시민교육 기반 강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건강한 민주시민이 국가 경쟁력의 최대 자산이라는 점에서 장래의 민주 시민이 될 청소년의 시민교육은 국가 경쟁력

www.kci.go.kr

차원에서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시민교육에 대한 정책 모색이나 제도화는 단순히 도구적인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 궁극적으로 사회 형성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투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www.kci.go.kr

참 고 문 헌

곽병선. (1992).『민주 시민 교육』,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곽준혁 (2004) “민족적 정체성과 민주적 시민성: 세계화시대 비지배 자유원칙,” 『사회과학연구』 제12집 2호. 34-66.

교육인적자원부 (2001). 『유아를 위한 통일교육 활동자료』,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권오정. (1987). “사회과와 사회과학”, 『사회과교육』. 제20호 47-60.

권오정. (1990). “민주주의 교육 방법에 대한 기본적 고찰”,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규수 (2000).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기본생활관 형성과 그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1), pp.229-252.

김성국 (1992).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격.”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한울.

김숙자(2004), “유아 대상의 민주 시민교육과 통일 교육에서의 지역적 특성 분석에 의한 통일사회 지향적인 민주 시민교육 활동 프로그램 모형 준거 개발”, 『유아교육논집』 제8권 제4호 87-116.

———· 김현정 (2003). “교수학습과정 기본모형에 터 한 유아 통일교육 관련 이야기 나누기 활동에서의 교수 학습방법연구”, 『열린 유아 교육연구』, 8(1). 51-69.

———· 김규수 (2003). “도시와 농촌지역 유치원의 통일과 민주시민 교육 실천에서 나타난 교사의 교수 행동유형 : 통일사회 지향적인 민주 시민교육 활동 프로그램 모형 준거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둘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0권 3호.

www.kci.go.kr

———・김규수・광상신・변선주, (2003), “도시 지역 유치원의 통일과 민주시민교육 실천에서 나타난 교사의 교수 행동 - 통일 사회 지향적인 민주시민교육 활동 프로그램 모형 준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Ⅰ).” 『열린유아교육연구』,제8집 2호, 73-94.

———・김규수・김현정. (2004). “유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1권 3호.

———・지성애・최민수・서성미 (2003). “유치원 통일교육 실천 내용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1), 241-268.

김영옥 (1990). “민주시민의식 배양을 위한 유아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인간발달』이화여자사법대학 인간달발연구소, 57-88.

———・최미숙 (1995). “유아기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 다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유아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39-58.

김영인(2007)“청소년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경험과 시민성 변화”,『청소년연구』제14권 6호, 99-127.

———. (2003) “시민성 함양 방안으로서 청소년 봉사활동지도에 관한 연구: 봉사학습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 교육』제42권 2호.185-210.

김왕근 (1995). “개혁・세계화・민주시민교육: 시민성의 두측면-형식적으로는 관점과 내용으로보는 관점”,『사회와 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제20집, 61-72.

김창환 (1999). “유치원의 민주교육” 『열린유아교육학보』, 1999년 열린유아교육학회, 한독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독일 상황중심 유아교육 이론과 한국적 적용, pp.327-343.

김항원 (1999). “학교생활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도방안”, 『백록논총』, 제주대학교 제1집, 231-154.

김해성. (1995). “시민사회의 성격과 시민의 역학- 시민교육을 위한

www.kci.go.kr

예비적 탐색", 『사회와 교육』 제21집, 137-154.
남억우. (1998). 『교육학대사전』, 서울 : 교육과학사.
박아청 (2006). "아동의 자립의식 육성을 위한 심리학적 접근", 『아동교육』, 제15권 제1호, 157-167.
박영신・윤영진・김의철(2006). "한국사회와 정치에 대한 인식과 신뢰: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심리차이",『아동교육』 제15집 2호 257-270
박호근 (2000). "평생교육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치행태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회 제38집 2호, 169-192.
서규선・윤기영 (1995). "유치원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국민윤리연구』, 제34집, 399-423.
서울대사대교육연구소 (1981).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 배영사.
신기현. (2006). 현대 한국의 시민정신, 무엇이 문제인가? [청년민주시민지도자 훈련 세미나 자료].
———. (2004). "선거와 민주시민교육," 심익섭 외.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서울: 앰애드.
신정현・신용철・권오정 (1987). 『민주시민 교육론』, 서울 : 탐구당.
안정수 (1997). 민주 시민 교육의 개념·목적·이론·과업. 경희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논문집, 13(0), 89-108.
엄판호, (2001).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안", 『교육이론과 실천』, 제11집 2호, pp.463-511.
유석렬. (1996).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과 시민의식. 사회와 교육』, 23(0), 11-24.
이상선 (1946). 『사회생활의 이론과 실제』 서울: 금륭도서문구주식회사.
이상인 (2008)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 일상의 민주주의와 민주적 시민성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40권 1호, 95-126.

www.kci.go.kr

이운발. (2005). “교육과정 개정기에 따른 사회과 목표로서의 ‘민주시민’에 대한 의미와 그 시사점”, 『사회과교육』, 제44권 2호.
이종만 (1995). “사회교육법 개정방향”, 『대한교육법학회』, 제7집 221-241.
———. (2003). “평생교육 관련 법규의 구조와 문제점”, 『교육법학연구』 제15집 1호, 207-221.
———. (1995), “사회교육법 개정방향”, 『교육법학연구』제7집 December 221-242.
이진석 (1995). “사회과 학습 목표로서 ‘시민성원리’와 내용구성 방법으로서 ‘통합성 원리’에 대한 사적고찰: 사회과 성립 과정 시기를 중심으로”, 『사화화 교육』, 173-191.
이해주 (1997). “민주시민성과 사회교육의 관련성”, 『사회교육연구』, 제13집 2호. 19-49.
임희섭. (2001). “한국사회 시민성의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 제4집, 5-20.
장원순. (2007). “초등사회과요긍에서 정치적 판단력 증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접근법” 『사회과 교육』제46권 1호, 107-125.
전득주. (1992). 『현대 민주 시민 교육론』, 서울 : 평민사.
전숙자. (1999). “민주시민성 구성요소의 두 가지 차원”, 『시민교육연구』 제29집 135-159.
전창완. (2001). “우리나라 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제적 시민성”, 『시민교육연구』 제36권 2호 243-270.
전현심. (2005).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 형성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15권 제2호 147-169.
정윤정. (2003). “초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 한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수. (1990) “조,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www.kci.go.kr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달. (1997) 『사람, 삶, 되살림2: 새로운 교육문화 사회운동론』 서울 한울.
차민수·김숙자·지성애·심정화. (2002). “수준별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른 통일 교육 관련 교육 지도서와 교육 활동 개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1년 교과교육공동연구과제 수혜 연구 논문 보고서”, 『 한국학술진흥재단』
최은수. (1997). “학교교육에 의한 민주시민교육 연구: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7집 4호 19-41.
추정훈 (1996). “정치학과 시민성 교육”, 『사회와 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제23집, 161-178.
——— (2004). “민주시민성교육 과정 속에서의 민주주의 교육”, 『시민교육연구』, 제36권 2호.
———, (1998), “시민성교육의 본질로서의 사회통합교육.” 시민교육연구』, 제27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최병모, (1997). “사회과에서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한 방향 탐색. 윤용탁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대학교 사법대학 사회교육과.
최병완 (2008).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도덕과 교육방안”,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제27집.
통일부 (2002). 『2003년도 통일 교육 기본지침서』. 서울 통일부.
한국교육개발원. (1993). “한국의 진로와 민주시민 교육 :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1994). 『민주시민교육』, 서울 : 서울교육개발원.
한면희, (2001),『사회과 교육,』서울 : 교육과학사.
황윤주 (2001). “시민교육 학습자의 참여 동기 유형과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용희 (2004). “세계화 시대의 민주시민교육 정립 과제”, 『한국윤

www.kci.go.kr

리학회』, 제55호.

Arendt, H., (1958), 이진우・태정호 역 (1996). 『인간의 조건 』, 서울: 한길사.

Baley & Anastasi, 1981,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zation in Encyclopedia of Education on Reserch*(Calf Wesley & menlo park).

Banks, J. A.., (1990).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Inquiry, valuing, and decision making*. Reading, Mass.: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Benhabib, S., 1999, Citizens, Residents, and Aliens in a Changing World: Political membership in the Global Era". *Social Research*, vol. 66 No. 3. 709-744.

Brooks, J. B.(2001). *Parenting*.: Mayfield Publishing Company.

Butts, R, F.(1991), "Personal Preface", Civitas, California: Center for Civic Education

Butts, R. F. (1988) *A Personal preface.* In Bahmueller, C. F.(ed.) CIVITAS; A frame work for civic education Calabasas, C.A.:Center for civic Education.

Cohen, J. & Arato, A.,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Crewe and Searing, (1996) Citizenship and civic education(Lecture given at the RSA, London, on 21 May.

Davies, Ian・Gorard, S.・McGuinn, N. (2005). Citizenship education and charcter education: similarities and contras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53, No. 3, 341-358.

Davies, Ian・Evans, Mark・Reid, Alan, (2005). Globalising Citizenship education? A Critique of 'global education' and 'Citizenship education' *British Journal Educational*

www.kci.go.kr

Studies, Vol. 53, No. 1, 341-358.

Dynneson, T. L. & Gross, R. E., (1991), *Social science perspectives on citizenship educntion* New Yark: Teachers College Press.

Engle, Shirley H. & Anna S. Ochoa.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N.Y.: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1988. 鄭世九 譯. 『民主市民敎育』. 서울: 敎育科學社 , 1989

Dahrendorf, Ralf, 1990, T*he Modern Social Conflict, An Essay on the Political of Liberty* BerkeIey: Universiy of Califomia Press.

Davies I. Gorard, S. McGuinn, N.(2005),Davies, Ian · Gorard, S. · McGuinn, N. (2005). Citizenship education and charcter education: similarities and contras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53, No. 3, 341-358.

Dewey, J., 1964, *Logic-The theory of Inquiry*, New York: Holt, Rineha.

Gutmann, Amy, 2003. *Identity in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Greenfield, P. M.. & Suzuki, L. K., (1998). Culture and human development: Implication for parenting education, pediatrics, and mental health i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ed..S. Harkness and C.M. Super. New York: Guilford.

Habermas J.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Boston:

www.kci.go.kr

Beacon Press.
Habermas, J. (1998). *The Inclusion of The Others*. Cambridge: MIT Press.
Heater, D., (1990). *Citizenship: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Longman.
Hyman, H., (1995), *An Intellectual Portrait* (New York, Doublday.
Jacobson, David, (1997) Introductioon in Rights across Borders. Baltimre: The H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Lawson, Helen, (2001). Active citizenship in schools and the community, *The Curriculum Journal,* Vol. 12. No. 2.163-178.
Marshall, T.H. 1950, *Citizenship*,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Mehlinger, H.D. & Davis, O.L. 편, 한국사회과교육회 역, 1986, 『사회과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Merrifield, (1997). Finding our lodeston again: Democracy, the civil society and adult education. In P. Amstrong, M. Zukas, and N. Miller(eds.), *Breaking boundaries, crossing borders.* Proceedings of the SCUTREA 27th Annual Conference. London: SCUTREA.
Michael, J. M. (1999) *Second Chance at Citizenship: "Trickle-up" Influence of children on Parents,* A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NCSS., 1989, In Search of Scope and Sequence for Social Studies. *Social Education*, October.
Newmann, F. M., (1975), Education for Citizen Action - Challenge for secondary curriculum - McCutchan

www.kci.go.kr

Publishing Corporation.
New, R. I. & Richman, A. L., (1996). Meternal beliefs and infant care practices in Italy and United States in Parents' Cultural Belief System: Their Origins, Expression, and Consequences, ed. Harkness and C.M. Super. New Hetherington (Hillsdale, NJ: Erlbaum, 1991), 195-218.
Pandak, (1999) He teacher's role in promoting active citizenship in a transforming society. *Educational Practice and Theory*, 22(1), 58.
Parker, W. C., (1989). Participatory Citizenship: Civics in the Strong Sense. *Social Education*, 53, 353-354.
Proctor, R. E., (1988). Education's Great Amnesia, Indiana University Press,
Rogers, C. R. (1975). Empathic: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y, 5, 2-10.
Ross, Alistair, (2007). Multiple identities and education for active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55 No.3. 286-303.
Ruzicka, R. (2000). The teacher's role in promoting active citizenship in a transforming society. *Educational Practice and Theory*, 22(1), 58-59.
Scott, A. (1990) Political culture and social movements. In J. Allan, P. Braham, and P. Lewis(eds.), *Politics and economic form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Singapore. (1993). Curriculum Development Institute of Singapore. Civics and moral education, teacher' s guide.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1982,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1992.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1992.

www.kci.go.kr

A Study on the Educational Ideas and Orien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 for Building Democratic Citizenship: focused on the Level of Citizenship and Dominated System

Oh, Kwan-suk (Jeonju University)
Shin, Kie-hyu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citizenship's cultivation of adolescent which was divided educational ideas and orientation into social level and institutional's.

As a result, the civic education of democracy which adolescent needed to is showed a little difference according to a matter of researches. The education of democratic citizen generally come out a dignity of human and the capability of rational decision making and the public order and realization value in the democracy. The cultivation of civic education for adolescent have studied how to accomplish researches which divided in to the domination of each other levels.

Home environment have put the emphasis which is a lot of importance of ethics consciousness. Educational institution has leaded to a project in which education and leading being on the democratic consciousness. It is a degree that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NGO) guided to cognition about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Public institution has researched financial support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for accomplishment of

www.kci.go.kr

citizenship consciousness.

In conclusion, the civic education for adolescent has accomplished the system from home to educational institution. And Adolescent′ education of NGO not only which referred to social activities did not prepared the system of education for ideas and values of citizenship, but which was not sufficiency on systematic support.

Keywords : Citizenship, Citizenship consciousness, Educational ideas, Educational orientation, Adolescent

www.kci.go.kr